

# '하나의 세계, 하나의 스포츠'

### 세계태권도연맹·국제태권도연맹, 제1회 전북도

###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개최

2021 스포츠태권도 국제 융합 컨퍼런스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태권도원 상설지구 명인관과 일여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ITF)이 후원한 것으로 단일 종목 최초 전문학회(한국무예학회와 대한운동학회, 한국운동역학회)가 함께 한 융합 컨퍼런스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8일 열린 개회식에는 조영원 WT총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정국현 ITF사무총장, 김무현 국가원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WT시범단 공연 등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원 WT총재는 "이번 컨퍼런스는 49년간 WT와 ITF 두 개의 태권도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단체가 하나로 가는 길에 초석을 만들자는 뜻을 모으면서 마련된 자리"라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서로의 격차가 해소되고 One World One Sport Taekwondo가 자리를 공고히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4년 전 이곳에서 개최됐던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남북한 태권도가 화합의 물꼬를 트며 자랑스러운 태권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것처럼 이번 학술대회가 태권도 연구의 기반이 되고 하나의 태권도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경이로운 여정에 태권도성지 무주가 발을 맞추게 돼 영광"이라며 "남과 북이 분단의 상황을 넘어 태권도로 하나 됐던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감동이 이곳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모아 무주 태권도시의 완성과 태권도 위상 강화, 올림픽 영구 종목화를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모아 무주 태권도시의 완성과 태권도 위상 강화, 올림픽 영구 종목화를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 형태, 정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3일차인 20일에는 "스포츠 태권도 동작 특성의 과학적 분석"과 "스포츠 태권도 선수의 장비와 태권도 지도법", "스포츠 태권도 생체 역학적 특성 비교"에 관한 12개 주제가 발표돼 호응을 얻었다.

회를 통해 세계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절실한 앞에서 전북도와 함께 말굽자식의 모양과 원리를 적용한 U-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U는 전 세계, 전 인류를 뜻하는 Universe, N에는 북한(North Korea), S에는 남한(South Korea)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남북한 평화정착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범을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U-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태권도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문화고속도로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 형태, 정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2021 스포츠태권도 국제 융합 컨퍼런스 기간 주최 측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참석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확인, 전신 소독 게이트 운영, 출입명부(QR 코드, 수기) 작성, 손 소독, 가림막 설치,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실내 공간 1일 3회 소독 등을 진행했다.

무주군에서는 별도의 점검·대응팀을 구성해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의 진행을 도왔으며 유증상자 발생 시에 대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 "산림분야 고부가가치·전문가 육성을"

####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황인홍 무주군수에 군정질문을 하며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들을 입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골고루 정책의 시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정례회에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경영 정책전망,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농업 외 지역산업 발전방안,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중·고등학생 통학차량 지원 건의 등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산림자원이 무주군의 산업기반이 되기에 충분히 중요한 경제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그린뉴딜 정책 시행에 따라 친환경 산림자원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며 무주군의 산림정책 현황과 산림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임업소득원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K-뉴딜, 그린뉴딜 기조에 맞춰 향토산 산림복지단체를 지정받았고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향토산 치유의 숲과 덕유산 치유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주군은 지역과 환경감상, 휴식, 휴양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테마임도와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등으로 경제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전문가 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는 임업전문 기능인력, 임업후



계자, 산사태 현장에 방한 양성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림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산림자원이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이어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무주군 모바일 쿠폰시스템 도입 등으로 다시 찾는 무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주)무진창 여객은 버스노선 변경 및 증차 등의 절차가 복잡해 효율적이고 대응성 있는 노선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버스승객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무주군 내 운행노선 및 차량을 매입해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의 교통안전 및 학업성취를 위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한 통학버스 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정질문에 황인홍 군수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SOC 확충으로 정주인구 늘리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여가, 문화, 복지공간 확충, 군립요양병원 건립, 마을장비형 공공주택 건립,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돌아오는 무주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통

### 우기 전 예방 대응

#### 전춘성 진안군수 대형 사업장 현장점검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8일 관내 주요 대형 사업장을 방문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우기 전 집중호우와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 현장은 금강사지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천 및 산림 재해복구 사업 등이다.

현재 진안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억원의 피해를 입은 관내 공공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2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춘성 군수는 "본격적인 우기 이전에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 건립사업 의견수렴

진안군은 지난 17일 진안군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진안군 장애인 골프협회 등 7개 단체회장들이 모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견 수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는 1층은 수중운동실 및 샤워실, 2층은 체육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안군 장애인 수영연맹(조현희 회장)은 수중 재활치료사를 채용하여 수중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될 시군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방안과 장애인 우선 이용권 보장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농기센터, 가축분퇴비 활용 브로콜리 재배 평가회

장수농업기술센터는 전북농업기술원과 함께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가축분퇴비를 활용한 브로콜리 재배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브로콜리 재배농가 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로콜리(품종 프리마-65)의 가축분퇴비, 유박비료(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시험구별 생육상황 및 식미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4월 15일 정식 후 5월 하순 실시한 개화기 생육조사(초장, 엽장 등)결과 시험구별 차이가 크게 없었으나, 현재 수확중인 브로콜리 중량은 가축분퇴비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실증시험은 토양검정시비료에 따라 질소비비 기준 50%를 전량 밀가루를 사용했으며, 3요소 부족분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했다. 실증시험을 통해 센터는 원재료를 전량 수년에 의존하는 유박비료 및 무기질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퇴비 활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공직자 전문성 보장하는 인사정책 절실"

### 이광환 무주군의원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군정질문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인사정책을 실시하라고 강조하고 유연근무제 적극시행을 주문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주군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리고 안정적 농업경영과 무주반딧불농산물 우수성 확보를 위해 농업정책 사업 일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최근 3년 동안 필수보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된 공직자가 2019년 218명 중 72명, 2020년 113명 중 42명, 2021년 91명 중 34명이라며 "최근 무주군 재정문제가 전문성을 위한 원칙보다 잦은 전보와 팀 내부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의구심이 든다. 공직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인사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질문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이어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커지는 만큼 무주군 직원수도 늘었지만 청사의 공간적 한계로 업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주차공간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하며 황인홍 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황인홍 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전보인사 시 조직구성원 개인의 적성과 경력을 면밀히 고려해 적합한 보직에 임용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여건상 일부 직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을 지켜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결원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근무여건 제공, 직무연찬 시스템화, 인사고충문제에 대한 적극 해결로 공직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재정 여건과 군민,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살피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군정질문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농산물 공동수집장 건물은 창고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곳이 있고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농업정책 사업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품질검사방법 고도화와 차등지원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가고 있고 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 판매대행 사업도 농가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 하지만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홍 군수는 학술정책연구영역의 수준과 사업 반영으로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적극활용과 연구과제 중점여부 파악 등으로 용역 결과물이 군정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미니보건소 운영

무주읍행정복지센터가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미니보건소를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읍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세 팔팔 무주읍 건강자킴 미니보건소를 운영한다. 미니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환경적 제약이 증가하면서 건강 저하의 우려가 있는 주민을 살피기 위한 취지

로 운영된다. 이곳은 무주읍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상담실 직원들이 전담한다. 이들은 반딧불시장 남문을 활용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미니보건소를 연다. 이곳에서는 노트북을 활용해 신체요법을 담은 동영상 제공하고 혈당 대체 교육 및 상담을 펼쳤다. 또 간혹적 공무원은 협업과 혈당 등을 검사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장계남초 개발 본격화

### 건물 철거·환경정비 완료... 부지 문제 해결 협력·개발 계획 준비 박차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민간기업에 매각됐으나 장시간 흥물로 방치됐던 장계남초등학교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철거되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옛 장계남초등학교는 2001년 폐교 후 2007년 (주)아로에 연수원 및 연구소 활용으로 매각됐으나 13년여 동안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왔다.

(주)아로는 당초 장계남초에 연구원 및 연구소 건립을 계획했으나 대규모 연수원이 건립되면서 개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주민들은 인근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청소년 우범지대 전라 열려와 불안을 제기해 왔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3년간 (주)아로에 부지매입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군은 장수교육지원청, (주)아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민간기업에 매각됐으나 장시간 흥물로 방치됐던 장계남초등학교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철거되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왼쪽부터 공사 전 후 모습)

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부지 활용을 촉구했으며 4월 7일 장계남초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이달 17일 건물 철거와 주변 정리를 통한 환경정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장수군과 군의회 교육청 등은 옛 장계남초등학교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주)아로는 교육 관련 시설 등 개발 계획

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장계남초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계남 초등학교는 "역사를 품은 장계남초 사단장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수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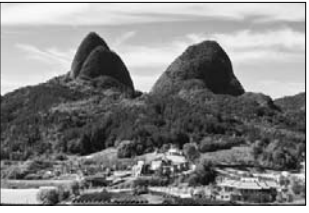
## 진안군 대표 볼거리·살거리·먹거리 재선정 추진

### 군민 선호도·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통해 재선정

진안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특산물 대표 먹거리 등 기존의 8경8품미를 재 선정하기 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선정은 군민 선호도와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점에서 재선정을 할 계획이다. '8'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향후 8경8품미가 아닌 다른 숫자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

먼저 선호도 조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며 설문지 제작·배포와 함께 진안군 홈페이지(진안군



청홈페이지/소통참여/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우편·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팩스(063-430-2713), 방문도 가능하다.

또한 최종 선정은 군민, 사회단체, 학교 등 유관기관, 향우회, 자매우호회 등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기획팀(063-430-2212, ejk8194@korea.kr)을 통해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진안의 8경8품미는 지난 2001년 첫 선정 후 2011년 재선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항목으로는 8경(景)으로 마이산 용담호, 운일암비림암, 운장산 구룡산, 마이산석담군, 백운동계곡, 운장산자연휴양림이며 8품(品)에는 인삼, 홍삼, 고추, 흑돼지, 표고, 꽃감, 한파, 더덕이다. 또한 8미(味)는 더덕구이, 흑돼지, 산채비빔밥, 쏘가리매운탕, 애저, 민물매운탕, 어죽, 송어회다.

/진안=우태만 기자